

#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고...

## 교동아트센터서 송태정 개인전

### 기다리면서 느껴지는 외로움 일상속의 다양한 만남 담아내

송태정의 개인전 '기다림과 만남'이 교동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으로 한지의 부드러운 맛을 살려 그리고 찢어 붙이는 방법을 이용한 크고 작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작품 '기다림' 시리즈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담아낸다. 교묘히 흐르는 달빛아래 비취지는 조팝나무꽃과 바람에 날리는 도라지꽃, 달맞이꽃의 속삭임은 잔잔한 소나타 선율을 그리듯 묘사된다.

또 '만남'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만남들을 속에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기쁨들과 환희 등을 표현하고 있다. 만남의 배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즈넉한 시골풍경은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어릴 적 향수와 아련한 추억을 전한다.

먼 길 떠나신 아버지를 배웅하고 마중하는 모습이 나 친정나들이에 반갑게 맞이해주는 엄마, 그리고 물고기·풀잎·구름·나무 등에서 파스한 점이 스민다.

송 작가는 "전시작품으로 하여금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며 묵혀 놓았던 자기만의 동화책을 펼쳐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정해은 기자



## 여성의 사회 참여·건강한 여가생활 유도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8년 1기 교육 수강생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사회 참여와 건강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증취득과정, 생활문화복지지원과정, 기능기술 향상과정 등 총 4개 과정 68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린이 경제교육' 'SNS 글쓰기' '푸드테라피 상담사' 등 11개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쾌적한 우리집! 정리수납' 등 겨울 단기특강 과목이 개설된다.

또한 직장 재직자를 위한 '일분어 패턴회화' 'SMAT(서비스경영자격)' '피지컬 코딩 지도사' 등 19개 과목이 아간에 편성돼 직장인을 비롯한 수요자에 따른 다양한 시간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전북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1월부터



오는 3월까지(8주~12주) 석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연 1회),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본인에 한해 무료 수강(연 4회)을, 남성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정해은 기자



## 홀로 선 무용가 고뇌를 담아

### 산조전통무용단, 소리문화전당서 '모노드라마 맘, 그리운 날에'

산조전통무용단(예술감독 문정근)은 27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춤이 있는 모노드라마 맘, 그리운 날에'를 공연한다.

무용단은 그간 전주춤 뿌리찾기를 주제로, '전라삼현승무'와 '전주학무' '전주 민삼풀이' 등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작품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공연은 2017년 전라북도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재공연을 갖게 됐다.

무용의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연극에 가까운 이번 작품은 춤으로 관객을 만났던 문정근 명인에게 배우로서 연기를 보이는 큰 도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문정근 명인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그린 작품은 홀로 선 무용가의 고뇌가 녹아있는 어머니를 위한 회상곡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운 마음이 절절이 묻어나는 대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문 명인은 "2년 전부터 홀로서기를 위한 모노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전체구도와 음악을 선별하고 안무를 짰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작가(최정은-KBS전주 라디오 작가)에게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 '올 한해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 전주시립국악단, 29일 송년음악회

전주시립국악단 제21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올 한 해 동안 전주시립국악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관현악 '전주의 새아침(강성오 작곡)'이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 곡은 국악단의 위촉곡으로 화합과 통합의 길 그리고 다가올 희망의 전주를 표현한다. 국악관현악과 대북, 무용이 함께 어우러진 곡으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다.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한 국악가요 '한비빔전주'는 흥겹고 재미난 가사가 특징이다. 무대에는 김민영, 최경래 단원이 오른다.

이어 전주시립국악단 단원들 자녀들이 송년 캐롤로 꾸미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초연되는 '이상한 나라의 고양이(황호준 작곡)'는 멀티악기 연주자 권병호의 국악관현악 협연을 위해 작곡됐다.



권병호는 대중가요·재즈·월드민속음악에서부터 다양한 국악에 이르기까지 연주 영역의 폭이 넓은 연주자로, 하모니카·아이리쉬 휘슬·플루트·디저리두 등 수십 종의 관악기와 아코디언·버튼박스 등 건반악기 다수 심지어 다양한 타악기까지 두루 소화한다. MBC 복면가왕, Mnet 슈퍼스타K 하우스밴드

및 70여개 음악프로와 2000여회 연주, 가수들의 음반레코딩 등 다수의 음악작업에 참여했다.

김준수와 함께하는 소리관현악 에스닉퓨전 밴드 두번째달의 히트곡 '열음연못'에 관소리 춘향가 중 갈까부다 대목을 얹어 편곡한 '이별가'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달의 또 다른 히트곡 '어사출두'는 관소리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말과 시김새 등 국악적 표현방식은 그대로 살리면서 크로스오버적 편곡하여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단 박천지 상임지휘자가 직접 작곡한 관현악 'Miracle'이 개작초연으로 장식한다. 이는 세계 12개국 사람들로 구성된 국립극장 CPI(문화동반자)를 위해 만든 곡.

몽골의 목가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은 원곡에는 몽골의 대표적 연주법인 후미가 연주되었지만, 이번 연주회에서 피아노와 밴드 시운드를 더해 개작해 선보인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